알프스의 정기 받을 수 있는 파워 스팟.

한국은 백두대간의 정기, 스위스는 알프스의 정기

정기 흐르고 에너지 레벨 높은 자연 한복판
동굴, 폭포, 협곡, 산 정상, 빙하에서 자연의 정기 담뿍
스위스 사람들도 이런 걸?!?
지친 몸과 마음 어루만져 주는 스위스의 자연
스위스 사람들한테도 좋다고 소문났다니, 우리도 한 번

최근 "파워 스팟(Power Spots)"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파워 스팟은 영적인 기와 에너지가 느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던 '정기'를 뜻하는 셈이다. '백두대간의 정기를 받는다'는 표현은 꽤 흔한 표현이다. 한국관광공사는 2020 년까지 백두대간 파워스팟 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으며, 예천군은 권역별 '파워스팟' 개발로 관광산업을 공략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예천 백두대간 파워스팟"이 여행 테마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스위스 전역을 거쳐 알프스산맥이 지나고 있는 만큼, 스위스에도 이런 정기가 듬뿍 흐르는 "파워 스팟"이 많다. 서양인들도 최근 이런 파워 스팟에 관심이 많은 만큼, 스위스정부관광청에서는 스위스 각지에서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파워 스팟을 소개했다.

스위스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의식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그저 영혼을 자유롭게 놓아주며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 알프스의 정기가 흐르는 파워 스팟이다. 자연의 에너지가 증폭되는 파워 스팟은 예로부터 종교적인 의례를 치렀던 곳으로, 나중에는 교회나 수도원이 지어졌다. 파워 스팟은 자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폭포나 오래된 나무다.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런 특별한 장소를 찾아보아 마법 같은 순간을 소망해 보는 것도 스위스에서의 특별한 체험이 되어준다.

1. 취리히(Zurich) 근교의 엠마 쿤즈(Emma Kunz) 동굴
엠마 쿤즈 센터에 있는 바위 동굴은 스위스에서도 대표적인 파워 스팟으로 지친 마음을 다시 하나 가득 채워볼 수 있는 곳이다. 취리히 근교의 마을, 뷔렌로스(Würenlos)에 있는데, 로마시대의 채석장이 있는 곳이다. 엠마 쿤즈 여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86 년에 지어진 엠마 쿤즈 센터는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는 돌, 아이온 에이(AION A)을 발견한 엠마 쿤즈의 컬렉션을 잘 보여준다. 엠마 쿤즈 센터와 이곳의 바위 동굴을 찾은 이들은 평화와 고요에 깊이 빠지게 된다. 특별한 분위기로 가득한 것이 사실이다.

2. 스위스 동부, 생 조지 예배당(Chapel of St. George)
취리히와 쿠어(Chur) 사이에 있는 생 조지 예배당에서는 대단히 높은 레벨의 에너지가 요동치는 "두통의 구멍"을 찾아볼 수 있다. 우뚝우뚝 솟은 산봉우리를 배경으로 오래된 작은 예배당에서 바라보는 뷰는 실로 대단하다. 예배당을 찾는 이들 대부분은 이 "두통의 구멍"을 찾아온 이들로, "좋은 효과"가 있다는 말 때문이다. 게오르겐베르크(Georgenberg) 산에 자리한 예배당은 베르쉬스(Berschis) 마을을 내려다보는데, 11-12 세기에 만들어진 스위스 동부에서 가장 오래된 로마시대 예배당이다.

3. 타미나 협곡(Taminaschlucht)의 온천수
이미 16 세기부터 스위스 사람들은 스위스 동부, 그라우뷘덴(Graubünden)주에 있는 타미나 협곡의 온천수에 치료의 효과가 있음을 알았다. 여기에는 옛 온천 탕인 패퍼스(Old Bad Pfäfers)가 있는데,

36.5°C 의 따스한 물에 치유의 효과로 명성 높은 곳이다. 스위스에서도 스파 마을로 손꼽히는 바드라가츠(Bad Ragaz)와 바드패퍼스(Bad Pfäfers)의 수 세기나 되는 스파 역사의 기원이 바로 이곳이다.

4. 루체른(Luzern) 근교의 하일릭크로이츠(Heiligkreuz)
전설과 마법 가득한 어드벤처 트레일이 둘러싸고 있는 하일리크로이츠는 순례지로 유명하다. 루체른 근교의 유네스코 생물보존권 지역으로 명성 높은 엔틀레부흐(Entlebuch)에 있다. 스위스에서도 손꼽히는 파워 스팟으로 피트니스 트레일이나 젤렌슈테그(Seelensteg) 오솔길에서 그 힘의 원천을 발견해 볼 수 있다.

5. 루체른 호수를 내려다보는 슈탄저호른(Stanserhorn)
슈탄저호른 정상에 서면 삼면으로 에너지가 넘쳐흐르는 기운을 느낄 수 있다. 100km 너머까지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알프스 파노라마가 대단하다.

6. 알레취 아레나(Aletsch Arena) 지역의 에너지 스팟
예로부터 사람들은 알레취 빙하에는 마법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 광활하고 특별한 빙하의 모습을 실제로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꿈틀대는 신비의 힘이 온몸으로 느껴진다.

7. 사스(Saas) 계곡의 마트마크(Mattmark) 댐
사스 계곡 남쪽에는 유럽 최대의 흙댐이 있다. 바로, 마트마크 댐이다. 이 저수지는 전력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데, 진정한 파워 스팟으로 꼽힌다. 와일드하면서도 낭만적인 풍경으로 스위스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다.

8. 신비한 야운(Jaun) 폭포
초당 6 천 리터의 물이 쏟아져 내리는 야운 폭포도 정기로 유명한 곳이다. 엄청난 수량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 야운 폭포는 오랫동안 비밀에 싸여 있다. 몽트뢰(Montreux)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폭포와 교회의 주변은 특히 강력한 에너지 장에 위치하는데, 이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폭포 옆 울타리에서 수정처럼 맑고 가벼운 공기를 깊이 마셔보는 것이다. 심호흡 시 보비스(Bovis) 수치가 13,500 에 달한다.

9. 남국의 마을, 모뇨(Mogno) 교회
스위스의 이태리어권, 티치노(Ticino)에 있는 파워스팟으로, 티치노 태생의 스타 건축가 마리오 보타(Mario Botta)가 만든 교회다. 밖에서 본 이 건물은 기울어진 지붕 및 흑백 줄무늬가 있는 타원형 형태를 이루고 있다. 내부에는 같은 색깔로 이루어진 바둑판 모양으로, 현기증을 일으킬 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푸지오(Fusio)에 위치한 '키에자 디 산 지오반니 바티스타(Chiesa di San Giovanni Battista)'성당 이다. 눈사태로 인해 파괴된 작은 예배당을 대신할 교회가 마리오 보타에 의해 특별하게 탄생했다. 창문이 없는 이 교회의 내부(약 15 좌석)는 유리 지붕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 채광으로만 조명을 하고 있어 자연과 더 큰 교감을 할 수 있다.

10. 피으-디유 수도회(Abbaye de la Fille-Dieu)
피으-디유 수녀원은 산티아고 길에 있어 일상의 분주함에서 도피해 안정과 고요를 찾아 나선 여행자들을 품어준다. 프리부르(Fribourg) 지역 로몽(Romont)에 위치한 수녀원이다. 프리부르 지방의 영적인 장소 중 하나로 꼽히는데, 프리부르 내 영적 에너지를 가진 장소 60 곳(Esprit des lieux)

프로젝트의 일부다. 이 지역은 천주교의 주요 전통, 풍부한 건축 유산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 한가운데 자리한 파워 스폿이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